



멸빈자 사면 강력 재촉구

조계종 원로회의, 결의문 만장일치 채택

조계종 원로회의가 멸빈자 사면안을 부결시킨 종회를 질타하고, 재차 이들의 사면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관련기사 2·3면**

원로회의는 21일 제21차 회의를 열고 98년 멸빈 징계자를 포함한 62년 통합종단 이후 모든 멸빈 징계자의 사면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처럼 원로회의가 멸빈자 사면의지를 강하게 드러냄으로써, 이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종정 법전스님과 원로회의는 올 연초부터 세 차례에 걸쳐 사면의지를 담은 교서와 유시를 내렸으나, 멸빈자 사면은 지난 4월 임시중앙총회에서 부결됐다.

원로회의는 결의문에서 "종정스님의 교서와 원로회의의 유시를 비롯한 전 종도의 연연에도 불구하고 종회개정이 무산됨에 따라 원용회합종단 구현이라는 궁극적 대의가 실현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 원로 일동은 종단대화합이라는 중차대한 과제가 더 이상 일부의 이해에 의해 저해될 수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결의를 통해 재차 엄중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원로회의는 결의문에서 밝힌 3가지 결의 사항에서 △98년 종단사태 관련 징계자들에게 대해서는 1999년

년 종단사태 징계자 정우, 현소, 원학, 현근, 성문 5인을 포함해 모두 20여명 선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98년 멸빈 징계자의 특별법에 의한 심사 결정은 당시 재심사를 요청한 5명의 징계가 이미 '확정' 됐다는 시각과 '심사보류중'이라는 시각이 서로 맞서고 있는데, '멸빈자는 사면, 복권, 경감할 수 없

다'는 종헌(제128조)과 '멸빈자에 대한 복권, 경감 권한을 갖는다'는 특별법이 부딪히는 등 법적적 논란 소지가 크

다는 점에서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완전 사면을 위해서는 중앙총회의 동의를 있어야 하기 때문에 문제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1962년 통합종단 출범 이후 멸빈 징계자 사면을 위한 종헌개정을 추진하려는 요구가 끊임없이 중앙총회는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

한명우 기자 mwah@buddhapia.com

“‘원용종단’ 대의, 일부 이해에 좌우될 수 없어 통합종단 이후 징계자도 참회·발심기회를”

중앙총회에서 제정된 '해종행위조사특별법' 등에 의한 징계자들에게 대한 특별법'에 따라 심사에 결정하고 △1962년 통합종단 출범 이후 징계자들에게 대해서도 참회와 재발심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종헌 개정을 추진하며 △총무원과 호계원 등 유관기관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 조치들을 완수하라고 촉구했다.

총무원측은 이번 원로회의의 결의문에 따른 멸빈 징계자 대상자가 98

탈진 입원 수경스님, 다시 삼보일배 현장에 노대통령, '새만금 신규상기획단' 구성 지시

삼보일배 중 탈진으로 의식을 잃어 병원에 입원했던 수경스님이 입원 이틀 만에 다시 삼보일배에 참여했다. 수경 스님은 삼보일배 55일째인 21일 오후 과천 남태령 고개로 향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이송됐다. 담당의사는 "단순한 탈수나 탈진 정도를 넘어서 상태가 심각해 입원해야 한다"는 소견을 밝혔다. 그러나 스님은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23일 다시 삼보일배에 동참했다. 삼보일배단은 31일 광화문에서 순례를 마친다. 노무현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에서 '새만금 신규상기획단' 구성을 지시했다. **관련기사 7면**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사진 = 박재관 기자 jwpark@buddhapia.com

“불교자율권 침해소지 없어야”

조계종, 문광부 전사법 개정안 수정 요청

조계종이 문화관광부가 마련한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안에 대해 종단 자율권 침해 조항 등을 현실에 맞게 수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관련기사 3면
조계종은 20일 문화관광부에 전달

한 종단 의견서에서 전통사찰 부동산의 대여나 담보제공 시에도 문광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국가기관의 전통사찰 재산 수용시 문광부장관이 소속대표단체 대표자의 '동의'를 얻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또 동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의 대여나 담보 제공시 문광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종단 간 분쟁으로 인해 대표단체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라도 문광부장관 독단이 아닌 소속대표단체 대표자의 동의를 받아 임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계종의 의견서 전달은 문화관광부의 의견수렴 절차에 의한 것으로, 문화관광부는 개정안이 확정되는 대로 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한명우 기자**

춘천·강릉지역 스님! 무료로 인터넷 배우세요

춘천 6월 2일, 강릉 9일부터 시작

불교정보화협의회와 현대불교신문사가 스님들에게 컴퓨터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후원으로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스님과 종무원들만으로 구성되는 특별한 체제로 운영됩니다. 교육 실시 지역의 스님과 종무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제2차 춘천 및 강릉지역 교육 안내

지역	대상	기간	장소
춘천	춘천 일원 스님 및 종무원	6월 2일~6월 28일(4주) 매주 월~금요일 오후 4시~6시	춘천시청 정보교육실
강릉	강릉 일원 스님 및 종무원	6월 9일~6월 27일(3주) 매주 월~금요일 오후 1시30분~3시30분	강릉우체국 정보교육실

- 교육과정: 원도우 98, 인터넷 초급과정
- 수강료: 무료(교재비 4천원 본인부담)
- 신청 접수: 불교정보화협의회 사무국장
입원대 02-722-4162, ytlim@buddhapia.com
- 신청 기간: 5월 4일까지 전화 및 전자우편
- 모집 인원: 각 지역 15명

*3차 이후 교육은 추후 공지합니다.

불교정보화협의회·현대불교신문사

새기획

'그때 그사람 지금은' 4면

'茶문와' 26면

북한사찰 단청불사 지원

안료·재료 등 1차분 선적

북한사찰 단청불사 추진위원회(공동추진위원장 법타·학답)는 북한에 보낼 단청안료와 재료 및 도구 1차분 선적식을 27일 오전 11시 인천항 영진창고에서 갖는다.

조선불교도연맹측에 전달되는 1차분 지원 재료는 단청안료 및 재료 15톤 분량과 가설미계 및 합판, 화필 등 단청도구 일체(총 6천5백만원 상당)다.

추진위는 이를 계기로 시범사찰 단청불사 공동작업과 단청 주제의 학술토론회, 전시회 등 일련의 남북 교류사업들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남동우 기자**

불교 재량활동 교재 개발 종립학교 부교재로 활용

시청각 교육을 중심으로 한 불교 창의적 재량활동 교재가 개발된다. 이 교재는 종립학교 불교교과목의 부교재로 활용될 예정이어서 청소년 포교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불교교육연합회(회장 홍기삼)는 17일 충남 예산 덕산온천관광호텔에서 제 51차 정기총회를 열고, 기정 <창의적 재량활동을 위한 인성 교육 및 전통문화 교육교재> 개발을 2003년도 최우선 사업으로 확정했다.

지난해 실시된 제 7차 교육과정 에 따른 교육여건의 변화와 효율적인 불교교육을 위해 개발된 이번 교재는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게 다양한 시청각 멀티미디어 학습자료들이 활용된다는 점이 특징. 또한 전통문화, 불교문화콘텐츠 등 불교 인접 교과 관련 내용도 함께 실린다. **김두식 기자 doob@buddhapia.com**

현대불교신문은 수행·포교지다 읽으신 후 가까운 이웃에게

현대불교신문은 수행·포교지입니다. 다 보신 뒤에는 버리지 마시고 가까운 이웃에게 주십시오. 신문에 담긴 단 한줄의 말씀이 여러분의 이웃을 지도할 수도 있습니다.

- ◎ 구독 신청 안내
- 수 도 권 : (02)737-0090 부산 : (051)632-0064 대구 : (053)768-8008 광주 전남 : (062)375-9986 전북 : (063)255-2274 대전 : (042)489-9390 충북 : (043)258-3282 강릉 : (033)643-5599 동해 삼척 : (033)521-6293 영주 : (054)634-3429 경남 동부 : (055)353-1196 제천 : (043)644-4366 경남 서부 : (055)547-3489



최근 환경부장관 초청 종교인 오찬에 참석했던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현고스님과 사회부장 미산스님은 참석자들의 불교환경운동에 대한 관심에서 달라지고 있는 불교의 위상을 실감했다.

70년대 이후 가장 중요한 국사 사회적 이슈는 '민주화'와 '인권'이었다. 개신교와 천주교는 이 두 가지 가치를 실현하려

고 노력을 통해 한국사회의 중심에 섰다. 2003년 오늘, 사회는 변했고 '환경'이 전 인류의 화두로 떠올랐다. 우리 시대의 패러다임도 자연히 민주화와 인권에서

어느 한 쪽(예를 들면 국가기관과 싸워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하지만 환경문제는 다르다. 상대방(국민이나 정부)을 '감동' 시켜야만 가능하다. 그래서 솔선수

달라진 시대, 달라지는 불교

환경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 한 가운데 불교가 자리 잡게 됐다.

환경문제는 민주화나 인권문제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민주화나 인권은

경부고속철 문제 해결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바로 불교다. 생명가치를 최고의 이념으로 삼고 있는 불교의 가치관이 환경문제해결의 토대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은 지속성이 생명이다. 한 때 관심을 갖는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불교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도할 사상으로 완전히 자리 잡기 위해서는 친환경적 실천 프로그램 개발 등 끊임없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불교에 대한 기대가 과거 어느 때보다 높다. **한명우(취재부 차장)**

도다가마을 촌장님은 부처님이십니다.

촌장님은 늘 저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네가 있음으로 해서 주위 사람들이 행복하게 해라.
네가 있음으로 해서 주위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라.
다른 사람의 기쁨이 네 기쁨이 되게 해라.
이렇게 실천한 후, 실천했다는 생각마저도 모두 잊어버려라.
도다가 마을 주민은 늘 촌장님 말씀을 실천해 가려고 노력합니다.
촌장님 말씀이 바로 저희 마을을 다스려가는 내규(內規)니까요.

- 제가불자 수행공동체 도다가 마을은 강화도에 조성되며, 분양을 통해 입주하게 됩니다.
- 마을 안의 집에서 예불, 참선, 경전공부, 기도를 생활화할 수 있습니다.
- 식사, 세탁 등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 강화도 내의 병원(한방)과 결연을 맺어 검진과 상담을 늘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금자족을 위한 자체 수익 사업을 하게 되므로 노후의 삶을 안정되게 설계해 갈 수 있습니다.
- 열반시 마을 내 사찰에서 49제를 지내드립니다.



상담 및 문의 TEL 02) 704 3577, 719 4083, FAX 02) 719 4084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140 다보빌딩 2층
www.hwayeon.org e-mail: hwayeon@hwayeon.org